

## 광주·전남 빼곤 땅값 죄다 급등 앞아 당하는 '상대적 빈곤'

## 나주 혁신도시 밑그림 나왔다

한전·주거-금천, 정보통신·골프장-산포에 건설

공시지가 상승률 전남 2.97% 전국 꼴찌  
광주 3.72% 14위...서울은 15.43% 올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땅값 상승률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4분의 1 수준에 그쳐 집값과 함께 부동산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14위와 16위로 조사돼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가치의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타지역에 비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상승률까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1월 1일자로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지역	상승률(%)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전국 평균은 12.40%, 수도권 평균은 14.66%, 광역시는 6.94%, 시·군은 5.54%였다.

16개 시·도별로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한 서울이 15.43%의 상승률로 1위, 경기가 13.68%, 인천이 12.92%로 2,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다. 울산이 12.9%, 대구는 10.11%, 대전이 6.5%로 뒤를 이었다.

매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관심을 끌었던 기업도시 편입지역의 경우 전남에서는 신청사와 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토지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무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6.9%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기존 기업도시 편입지역인 영암과 해남은 2.90%와 2.06%씩 오르는 데 그쳤다.

용도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9.23%와 8.61%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상업지역은 오히려 2.49%가 하락, 극심한 불황을 반영했다. 전남에서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5.17%와 4.77%씩 상승했지만 역시 상업지역은 0.24%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지역의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전남 뿐이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천700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31일 발표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전력 등 전국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이 나왔다.

27일 전남도와 광주시, 한국토지공사 발표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한전 관련 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은 나주 금천면에 배치된다. 또 정보보호진흥원과 정통부 지식정보센터 등 정보통신 관련 기관은 산포면에 각각 들어선다. 이 같은 배치구조는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 군과 농어촌군 등으로 각각 구분해 개발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5만 명이 생활하게 될 주거지역은 중앙호수 공원 남쪽 금천면 동약리 일대를 중심으로 총 729만5천247㎡의 부지에 조성되며, 단독주택 1천819세대와 공동주택 1만7천79세대, 주상복합 1천102세대 등 모두 2만 세대 건설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 스포츠클럽센터 2곳 등이 조성되며,

종교시설 3곳과 문화시설 1곳, 주유소 2곳도 함께 신설된다. 특히 혁신도시 동쪽 산포면 일대에는 79만6천여㎡의 부지에 18층 규모의 필드장이 들어선다. 또 중앙호수 공원을 비롯 시민여가활동시설로 활용될 공원도 근린공원 8곳, 어린이공원 10곳 등이 혁신도시 일대에 골고루 들어서게 된다.

전남도와 광주시, 토지공사는 이 같은 계획을 기본을 삼아 다음달 15일 최종 개발계획안을 확정된 뒤 5월 중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늦어도 10월

에는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공기관별 보유면적.

▲한국전력 14만6천㎡ ▲한전 KDN 5만6천㎡ ▲한전KPS 5만1천㎡ ▲전력거래소 4만4천㎡ ▲한국농촌공사 11만5천㎡ ▲농업연수원 7만㎡ ▲농촌경제연구원 3만6천㎡ ▲농수산물유통공사 1만4천㎡ ▲사업확충사업추진위원회 1만㎡ ▲문화컨텐츠진흥원 1만㎡ ▲문화예술위원회 1만㎡ ▲저작권심의위원회 1만㎡ ▲지식정보센터 5만8천㎡ ▲전과연구조 4만1천㎡ ▲전과진흥원 2만8천㎡ ▲정보보호진흥원 3만2천㎡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 6천㎡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아프간서 폭탄 테러 한국 병사 1명 사망



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전격 방문한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기지 정문 밖에서 27일 자살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해 한국군 병사 1명을 포함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아프간-이라크 파병 이후 우리 군 병사가 폭탄테러로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각) 발생한 폭탄테러로 기지 밖에서 임무를 수행중이던 다산부대 윤장호(27) 병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합참은 "윤 병장은 사고 당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안내를 위해 기지 정문 앞에서 임무를 수행중이었다"며 "윤 병장 외에 한국군의 추가 피해는 아직 없으며, 특별히 한국군을 겨냥한 테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미국의 덕 체니 부통령이 아프간을 방문중이었으며 이날 발생한 폭탄테러는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카불 북부의 바그람 기지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나 폭발사건 당시 기지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다고 미군 당국은 밝혔다.

한편 탈레반 무장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요세프 아흐마디는 AP통신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우리는 체니가 이 기지에 머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탈레반 소속인) 로 가르주 출신의 몰라 압둘 라힘이 체니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무도 동심도 '무력무력'을 들어 첫 식목행사가 27일 신안군 입해면 동서리에서 열렸다. 이 수확 산림청 차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날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등 신안군의 향토수종 1천그루를 심었다. /위경리기자 jrjw@

## 盧대통령 "차기대통령 정치 아는 사람 됐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정치를 잘 알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 가치지향이 분명하고 정책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에서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 등을 묻

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면서 "특히 정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이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 "이 시점에서는 정치적 내각보다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인선 방향을 밝힌 뒤 "현재 장관들은 가끔씩 그냥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내일 3·1절 마라톤... 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리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과 서구 문화센터, 마재우체국4거리, 서광주역 주변 등의 차량운행이 전면·부분통제됩니다. 시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며 많은 양해 바랍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 보강!

피르와 피부가 걱정된다면 활성산소부터 잡으세요!  
패로, 스트레스, 흡연, 공해가 심해지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오래 지속되면 각종 질병과 성인병, 피부노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가 녹아들어 패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건강과 피부를 지켜줍니다.

젊은이가 많아도 중요해요...  
요즘은 남지도 피부다!

알려라, 살림하라...  
요즘은 여자가 더 피로하다!

아로나민 씨 플러스  
피로·스트레스 / 기미·주근깨 / 색소沉着 / 활성·수유기 / 요통·신경통  
☎ 제품문의: 080-022-1010 (평일) www.aroniamin.com

건강 100세를 위한  
ILDONG 앞등제약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 보강!

피로·스트레스 / 기미·주근깨 / 색소沉着 / 활성·수유기 / 요통·신경통  
☎ 제품문의: 080-022-1010 (평일) www.aroniamin.com